

수산식품 수출가공 민간기업 공모

군산시, 새만금 종합단지 입주 희망 기업·어업인·관련업 종사자... 입주업체 선정추진

군산시가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에 입주할 건설한 민간기업을 5월 30일까지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는 수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마른김·조미김 등 수산식품산업을 지역 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조성 중인 산업단지이다.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의 규모는 새만금국가산업 단지내 사업부지중 약 13만3,000㎡(약 4만평)에 달하며 군산시가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수산식품 집적화단지이다.

군산시는 수산식품 지원센터, R&D시설 등 공공용지 1만평을 제외한 약 3만평의 산업시설용지에는 지역 수산인의 영업 사업인 마른김 가공공장과 서해에서 풍부하게 생산되는 수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제조 수산

식품가공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본 공모의 입주대상은 한국 산업분류코드 10 식료품 제조업으로서, 수산물 이용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과 제조가공부분 1·2·3차 산업융복합이다.

다만 마른김 산업, 수산 식품 가공, 냉장냉동업으로 분류되고 수산식품을 취급할지라도 열료, 피혁, 도축업종, 유해물질, 냄새 다량 발생 우려 등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는 업종은 입주가 제한된다.

공모 대상 민간분양 및 임대용지는 약 3만평 규모로 약 1,000~3,000평 규모의 일반분양 6개 업체, 장기 임대 9개 업체 등 최대 15개 업체를 선정 입주시키게 된다. 규모화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연계 부지로 사업을 신청하면 2필지 이상 연계 신청도 가능하다.

군산시는 산업단지에 유망하고 우량

한 수산식품 기업을 입주시키기 위해 수산식품 위원회의 입주평가를 진행하며, 유사 사례인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의 사례를 검토해 활용할 생각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점수를 구성하여 운영실적, 재정능력, 사업계획, 고용인원 등 정성·정량 평가 기준으로 향후 면밀한 입주평가를 실시한다는 목표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과의 상생협력사업으로 국가산업단지 내 특별하게 지정된 수산식품 전문단지로서 경쟁하고 안전하게 국내 선도적인 수산식품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입주희망업체도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국가예산·현안사업 협의 위해 국회 방문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 지역 국회의원실과 시정 주요 현안 공유·논의

국가예산 및 현안사업 협의를 위해 군산시 신원식 부시장이 지난 29일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신원식 부시장은 2025년 국가예산사업, 전북특별법 특례활용 사업,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 등 예비타당성조사

준비사업,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사업 등 시정 현안 사업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전북특별법 특례활용 사업, △새만금 산업단지 추가 조성부지 건의 등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건의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지역 총선 공약과 관련된 국가예산 반영 등 구체적 추진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협력대응해 나

고 했다.

신 부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국가사업 및 새만금 기본계획(MP) 대응 등 지역 현안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정부예산안은 5월 31일까지 부처 단계를 거쳐 기재부 심의 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항·군산새만금신항 One-Port 전략 포럼 개최

시, 2026년 개항 맞아... 군산항·신항 효율적 운영방안 고민

군산시가 군산항·군산새만금신항 기능 정립을 통한 2026년 개항을 앞둔 One-Port 전략 구축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항만 통합운영'이라는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추어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 기능을 정립해 군산새만금신항을 군산항과 함께 환황해권 거점 항만으로 발돋움해나가기 위해서다.

포럼은 (사)한국해운물류화학회가 주최·주관했으며, 해운·항만·물류 관

련 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참석자들은 '타 항만 사례를 통한 매립지 귀속 담보성'과 '국가의 효율적인 항만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한 발제를 바탕으로 열린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는 좌장인 군산대학교 김민영 교수를 비롯해 성결대학교 정태연 교수, 김근섭 KMI 항만연구본부장, 군산대학교 박호 교수, 한국해운물류화학회 안우철 회장이 참석해 '군산항과 신항 One-Port 전략'이라는 주제로 군산항과

신항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시 관계자는 "항만은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주요시설이며, 전국의 유일 항만인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의 One-Port 전략을 통해 전북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방안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익산시는 1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와 우호협력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제교류 다각화 교두보 마련

익산시, 미주한인회총연합회와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익산시가 미주한인회총연합회와 손잡고 국제교류 다각화를 위한 교두보 마련에 나섰다.

시는 1일 익산시청에서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와 우호협력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최중오 익산시의회 의장, 서정일 미주총연 총회장을 비롯해 24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제교류 활성화와 경제·문화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협약식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익산시의 미국 도시 간 경제, 문화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익산시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미국 서부에 위치한 자매도시 컬버시를 비롯해 미국 전방까지 그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미주총연은 1903년 도산 안창호 선생

이 설립한 한인친목회를 계승해 1977년에 창립한 미주한인사회의 대표단체이다. 미국 내 한인 연대와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미국 전역 50개주에 165개 지역 한인회가 분포해있다.

서정일 총회장은 "따뜻한 환영을 해 준 익산시에 감사드린다"며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익산시와 미주총연의 상호교류와 친선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먼 길을 해주신 서정일 총회장님과 대표단에 감사로 감사를 드린다"며 "익산시의 세계화와 북미권 진출 확대를 위해 미주총연과 지속해서 다양한 분야의 상호 협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미국 내 컬버시와 지난 1983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청소년, 문화,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상호교류를 해오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사물주소판 설치...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

군산시가 전북 최초로 긴급구조신고(112,119) QR코드가 포함된 사물주소판을 설치한다.

사물 주소는 건물이 아닌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에 부여하는 주소를 말한다.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버스정류장, 지진목과대피장소 등 행안부가 고시한 20종의 사물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군산시도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작년년부터 사물주소판 부착사업을 시행해왔으며, 올해 상반기 버스정류장, 무더위쉼터를 포함한 95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새로 도입한 주소판은

QR코드 기입형 사물주소판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현 위치 정보가 담긴 112, 119 긴급구조요청 문자가 자동 작성되어 신속·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군산시는 등산로, 산악지역 등 재난위험지역에 설치한 '국가지점번호판'에도 2021년 행안부 지침에 따라 119연계형 QR코드를 부착하여 조난자들의 위치가 정확하게 신고 및 구조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소정보시설을 개선시키는 방안들을 모색해 군산시민의 생활편의와 안전을 위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청년몰 정책수당 상시운영

익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와 청년몰의 정책수당을 연말까지 상시운영한다.

익산시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와 청년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총 20%의 다이로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익산시는 정책과 관련한 경우 정책수당으로 지정 가맹점에 다이로움 결제금액의 10%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 총선 시 지급받는 인센티브 10%를 포함하면 총 20%의 혜택이 제공된다.

정책수당은 지역서점 28개소와 글로벌문화관 4개소를 대상으로 상시 운영했으나, 5월부터는 착한가격업소 32개소, 청년몰 17개소까지 확대된다.

정책수당 확대 지급은 물가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청년희망 네트워크 역량 강화 교육

익산시가 청년 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희망 네트워크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30일 청년시장에서 제3기 청년희망 네트워크 위원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청년 정책에 대한 이해와 청년 체감형 정책 발굴·제안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전북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함정훈 청기와 대표를 초청해 청년기본법의 이해와 청년정책 제안 실무 등을 교육했다.

아울러 청년 관련 기관·위원회와 분야별 청년정책에 대한 설명이 더해져 정책 발굴을 위한 폭넓은 관점과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희망 네트워크는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에 근거해 구성된 청년단체이다.

지난 2019년 시작해 올해 3기에 걸쳐 활동하면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동아리 지원사업, 면접 정장 대여사업 등 청년 제안사업을 정책화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겐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